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 ‘파문’ 지상중계 #3, 박이은실 편

제 1부: 탱자씨의 산내마을 귀촌기

지리산 자락의 기본소득 교수 박이은실

한인정: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고정 MC 팔매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박이은실 선생님이 계신 곳 이죠, 지금 저희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산내마을에 왔 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진행을 해줄 객원MC 문지영 님을 소개합니다. 지영 님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문지영: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에 서 활동하고 있는 문지영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는 해마다 지리산에 올랐었는데 그때마다 산내마을을 지났 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본소득 고수를 만나려고 하니 더 떨립니다. 인정님, 오늘 함께하실 게스트는 누구시죠?

한인정: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탱 자, 여성학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지식순환협동조 합 대안대학 교수 등 이렇게 여러 호칭을 가지고 계신 분입 니다. 『월경의 정치학』, 『양생애』, 『페미니즘 탐구 생활』을 포 함해서 몇 권의 책을 한국어로 옮기셨고요, 《한겨레신문》의 <박이은실의 지리산 책읽기> 《한겨레신문》 토요일판의 <지리 산에서 페미니즘을>을 연재하기도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전북 남원시의 산내마을에 내려와 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 고 계신 박이은실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이은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처럼은 살지 않겠다’;

기본소득의 고수가 산내마을로 귀촌한 까닭은?

문지영: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을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처음 만나고 이후 강연에서 뵈 적 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지리산 자락에서 선생님을 뵈 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도시를 떠나 귀농을 해 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처음 하셨을까요?

박이은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귀농한 것은 아니 라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요. 귀농은 농사를 전업으로 지으 시는 분들을 일컫는 호칭인 것 같아요. 저는 귀촌 정도예요.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아주 소규모, 전업이 아닌 농사 를 짓고 있으니까 귀촌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살게 된 지 가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7년 전에 귀촌을 하게 된 거죠.

문지영: 귀촌을 결심하셔도 결단을 하기에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귀촌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박이은실: 제가 이 질문을 사적으로도 받아보고 그랬었 거든요. 사실 이게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계기였기 때문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주 결정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나도 그렇게 돌아가는 데 어느 정도는,



한인정

어쩌면 상당히 일조를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하고 있던 일도 검사겸사 일종의 마무리 비슷하게 되면서, 제가 하고 있던 일들도 좀 다른 방편으로 해야 겠다고 생각했죠. 그 일에, 그 일 속에서

맺는 관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월호와 맞물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계기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

문지영: ‘이전처럼’, ‘관계’,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전처럼’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걸까요?

박이은실: 제가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세월호 있고 나서 제일 저에게 힘들었던 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들이나 썼던 글들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 항상 뭔가를 쓰고 말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뭔가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약간 무기력 중에 한동안 빠져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는 쓰고 싶지도 않고 뭘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들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고. 그때 몸 담고 있던 소위 제도권 학교나 학자들의 모임이랄까 아니면 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활동들 안에서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경쟁과 성장과 이런 얘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보이는 어떤 안타까운 것들도 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세월호 이후의 삶

이어야 했어요. 우리가 했던 약속들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잊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약속에 대한 저 나름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굳이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물론 사소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산내마을의 잠재성과 산내마을 정착기

한인정: 이런 결단을 이 산내마을이라는 공간과 함께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들어오면 처음 봤을 때 느슨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던데, 이 판넬이 산내마을을 표현해주는 거 같아요. 여기에 자리 잡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박이은실: 우선 산내는 여기 실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이 표방하는 게 마을 절이에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정한 종교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마을 절, 실상사가 그동안 ‘인드라망’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귀농 운동의 본산 같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20여 년 혹은 30여 년 동안 그 루트를 통해서 귀농을 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셨어요. 여기에 저처럼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고. 다른 곳들, 다른 농촌 지역들보다는 저에게 문화적인 친근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에 정착한 분들이 많으니까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있어요. 여기에 처음 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버벅거리고 뭘 몰라서 저지르는 행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지인한테 당시에 어떤 밭의 도라지꽃이 너무 예쁘길래 “도라지 너무 예쁘다, 저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혼쭐 난 적이 있거든요. 남이 열심히 농사짓고 한 것을 그렇게 무상으로 무턱대고 얻으려는 그런 고약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너는 도시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많다고 주인장한테 “물건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왜 여기서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을 들었죠. 너무 따끔하게 혼이 나고 그랬죠. 혼내는 사람도 약간 이해심 있게 혼을 낸 거죠. 그럴 법하다, 너가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런 혼은 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다른 시골 마을보



“도시라는 곳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고 현금을 갖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싶은 종든 간에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저는 썩을 되게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여기에 썩이 되게 많거든요, 썩을 캐 먹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땅이 준 선물 같은 거잖아요.”

다는 들어와서 살기에 약간 진입 장벽이 낮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에 지인들이 그 당시에 서너 명 살고 있어서, 그 지인들은 이 동네에 오래 살고 있었어요, 아직 귀촌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 왔다갔다 하다가 이 마을을 알게 됐고, 그래서인지 귀촌을 해야 하겠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여기였고. 물론 다른 곳도 좀 돌아봤죠. 여기 저기. 다른 곳은 어떤가, 정읍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때는 산내에 오겠다고 마음 먹고 다른 곳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왔죠.

도시에서 산다는 것과 농촌에서 산다는 것

한인정: 선생님은 이미 여러 글에서 도시의 임금노동에 의존해야 되는 걸 탈피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귀촌을 제시하셨었는데, 도시에서 사는 것과 농촌에서 사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아까 얘기하신 도라지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이은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살게 된 후 1년쯤 되었었나요?, 저는 여기 내려와서도 매주 한 번쯤은 일 때문에 도시에 갔었는데, 왔다갔다 할 때 잘 몰랐다가 어느 날 문득 도시에 가서 물을 먹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물을 꼭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확 와 닿은 거죠. 도시라는 곳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고 현금을 갖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싶은 종든 간에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저는 썩을 되게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여기에 썩이 되게 많거든요, 썩을 캐 먹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땅이 준 선물 같은 거잖아요. 무상의 선물이지요. 저는 그냥 감사히 먹는 거 그거밖에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웃들이 그냥 관계가 만들어지면 먹거리도 나눠 줄 때도 있

고 뭔가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나에게 당장 현금이 없는데도 내가 구매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집에 생긴다, 그래서 뭔가 괜히 풍족하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 같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아무리 이웃 하고 가깝게 지낸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의지가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물론 여기도 이웃사촌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의지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시에서 있을 때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소위 고독사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죽는 건 다 죽는 거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동네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뒤를 어떻게든 봐주겠다, 그 사람들이 오겠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알게 하겠지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 하는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되게 큰 차이 같아요. 도시 생활 하고는 다른.

문지영: 선생님이 계신 곳에 와보니까 천왕봉도 바로 보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거 같거든요. 이곳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시는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이은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단 저는 식구가 셋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식구들의 먹거리를 챙기죠. 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하는 우리가 키우게 된 ‘동물 반려인’들이라서. 반려 동물들, ‘동물 반려인’ 제가 그분들을 사람이라고 불려서... “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아무튼 그들 먹거리를 챙기고, 그다음에 작은 텃밭에, 올해 텃밭을 시작했는데, 아침에 가서 물도 줘야되고 풀이 얼마큼 자랐는지도 보고... 엇그저께 고추도 심었거든요. 그런 거 돌보는 일들을 아침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일 하고 돌아와서 저도 아침을 또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들에 벌레는 없는지 꽃은 폈는지, 추위에 잘 지냈는지 살펴보죠. 최근에 또 모종도 심고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거 돌봐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요. 아침에 그 걸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침식사를 농칠 만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점심 나절 정도가 되면, 점심 직전이라

까 그 시간이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 준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묵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탕지에서 수업이 있거나 세미나가 있거나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또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에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이게 기분 나쁜 바쁨이 아니고 그냥 알찬 바쁨 같은 거예요. 알찬 바쁨이라서 그냥 늘 잘 지내면서 바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문지영: 선생님, 들어보니까 바쁜 일상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쁨이 다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간이 혹시 있으세요?

박이은실: 그러게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너무 좋아요. 하루를 살았다, 아이구 이제 쉴 수 있구나 하는 그 시간.(웃음) 그래서 저는 불면증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제 나이 때가 되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그다음 갱년기가 있어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있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불면증이 쌓이고 한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꼭 자죠. 아침까지 꼭 자고, 중간에 깨는 일이 혹 가다 있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 시간이 저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이 시골에서 살아간다는 것

문지영: 그러면 여성이 지역에서, 시골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충이 클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박이은실: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골로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마을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문지영

기존에 있던 마을에 혼자 들어가신 여성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물론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꼭 그랬다기보다는 약간의 노출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다고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도는 이야

기를 듣기도 하고, 간혹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좀 걱정이다 싶는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꽤나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을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죠. 여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 도시에서 왔거나 한 분들이어서 어느 만큼 거리를 두고 어느 만큼 개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약간 합의가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 있고 밥 공기가 몇 개 있고 그렇게 알지 않아요. 서로 거의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고 그렇지만 또 필요하면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없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장이 되신 분이 남자분이신데 여기에서 꽤나 오래 사셨던 거의 원주민 격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여러 경로로 뵈는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바깥을 잘 나가시지 않는 어떤 남자분은 되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와이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할 어떤 접점들이 별로 없고 그 사람도 이 사람과 접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물론 도시도 그런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시골은 그게 좀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봤으면 어디 어디 사는 누구라고 알 법도 한데 여전히 그분은 모르셔요. 늘 만나면 저 윗

동네 어디 누구 집, 남자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누구네 집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제가 말씀드릴 때도 모르시니까 제가 누구라고 해도 모르세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집을 얘기하면서 그 남자의 집에서 몇 번째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 거예요.(웃음)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자들은 참 존재감을 가지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씁쓸함이 있죠. 그거 외에는...

지리산 페미니즘의 발원지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한인정: 그분이 페미니스트가 내려왔다는 걸 모르고(웃음) 『월경의 정치학』을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시골살이를 하다 보면 '누구댁'으로 불리잖아요. 누구댁 왔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까 이야기 중에 탱자 이야기가 나와서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가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박이은실: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는 지금 4기째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신 곳인데, 페미니즘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정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 세미나가 있는데 정규 과정은 페미니즘 관련한 텍스트들을 18세기부터 생산된 것들을 쭉 훑어서 정말 페미니즘 공부를 진득하게 하는 과정이고 오픈 세미나는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진행해요. 탱자 졸업생이라는 부담 없이,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졸업생이라고 하면 되게 어깨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웃음), 이런 부담감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었던 오픈 세미나 중에는 <자본> 세미나도 있었고 에코페미니즘 세미나도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탈성장 세미나도 있는데, 그렇게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두 축이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규 과정이 4기째입니다.

문지영: 지리산에서 열 수 있는 학교는 다양한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페미니즘을 주제

로 학교를 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박이은실: 우선은 제가 여기에 7년 전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즈음에 한국에서 페미니즘 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참에 마침 제가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페미니스트이니까 내려왔더니 그런 분위기가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데 공부할 데가 없고, 그런데 그런 요구는 있고. 제가 아는 대안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어떤 분은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요. 젊은 여성 분이신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분에게 불러가서 거기서 수업을, 우리는 안 올라가니까 내려와서 해달라 해서 좋다 하고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부에 대한 요구와 저의 계획들이 잘 만난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페미니즘 학교를 열었는데 열고 나니까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좋다,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공부를 하고, 멀리 계신 분들도 오고. 지리산에 페미니즘 학교가 있어? 이게 약간 신기한가 봐요. 겸사겸사 놀러도 오고 이려고 싶었는지 그분들이 오시고 했어요. 지리산에 학교가 많죠. 마을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핑을 주로 하는 곳, 그러니까 캠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여는 학교도 있고. 여기 지리산이 되게 넓잖아요? 수도권이 있듯이, 우리는 지리산권이 있거든요. 수도권과 필적할 만한 그런 권이에요. 근데 지리산권은 지리산이 워낙 큰 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구역상 남원이지만 바로 옆 동네가 경남 함양이고 그 바로 옆으로 가면 또 하동이에요. 산청이 있고 하동이네요. 그다음에 하동 옆에 또 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 우리는 지리산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공부 움직임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다양한 가운데 저는 여성학자로서 페미니즘 공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안 이상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겸사겸사 해서 페미니즘 학교를 열게 되었죠. 잘한 것 같아요.

한인정: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궁

금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탕자를 찾았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박이은실: 일단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20대 정말 초초반에서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역도 우리 마을 인근에 사시는 분, 제 이웃도 있어요, 가까이 사시는 분에서부터 서울이나 부산, 이런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왜 여기로 오실까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왜 굳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자랑 같지만 커리큘럼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페미니즘 공부를, 어지간한 여성학과 대학원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안 읽을 수도 있는 그런 텍스트들도 여기서는 끈질기게 읽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기는 공부를 빠르게 시킨다더라 소문이 났대요. 저희 1기들 졸업생들 덕분에. 1기분들이 잘 자리를 잡아주셔서, 그리고 1기분들이 입소문을 내셨나봐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저기 가서 해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약간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죠. 커리큘럼을 또 제가 당시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을 만날 일도 시에서만큼 없으니까 페이스북 같은 SNS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학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 그런 걸 보시고 커리큘럼이 마음에 드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내마을이라는 곳이 좋아서, 그다음에 지리산에 이게 있다는 게 좋아서 그래서 호기심 반, 호감 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인정: 정말 진짜 다양한 인연이 모이는 곳 같아요. 그래서 지역, 여성, 이런 다양한 ‘페미니즘 학교 탕자’에서의 제들이 서로 기대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얽혀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구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탕자 쌤의 귀촌기, 그리고 탕자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이런 의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부: 탱자씨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만났을 때

한인정: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기본소득으로! 박이은 실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이름을 처음 본 건 기본소득 논문에서였는데요. 이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데 기본소득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을까요?

박이은실: 201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아직 만들어지기 직전인가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본소득 연구팀이 꾸려지면서 그 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듣고 또 공부도 하게 되었죠.

문지영: 그러면 기본소득을 알기 전 그리고 알고 난 후에 선생님의 삶에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박이은실: 그렇죠.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섹슈얼리티에 관해서 썼어요. 여성학 안에서도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제 세부 전공이 섹슈얼리티예요. 기본소득은 소득 얘기니까 약간 경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경제 얘기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학부를 다닐 때에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경제적인 지점에서 이것들을 살피는 게 제 영역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섹슈얼리티와 어떤 식으로 관계 맺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페미니즘 안에서 소득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 사실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몫에 관한, 정당한 몫에 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에 관한 문제가

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각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 접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여성학 안에서 해왔던 공부들과 고민들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죠. 기본소득이.

그리고 그 이후에 논문도 쓰고 논문을 쓰고 나니 여기저기서 강연, 페미니즘과 관련한 기본소득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만나는 논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 주제에 관한 요청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강의들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어지면서 그게 지금은 탈성장까지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제가 여기서 살게 되면서 생태적인 사안이 사실은 여러 문제들과 접점이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에코페미니즘 관련한 공부도 했죠. 에코페미니즘 관련한 것도 일종의 디딤돌이 되긴 했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공부를 했던 것들이 탈성장으로까지 지평을 넓혀줬다고 할 수 있어요.

가부장적 성체제 해체의 열쇠 기본소득

한인정: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013년에 발표하신 「성체제와 기본소득」이라는 논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소득이 현재의 젠더 문제에 의미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같은 생각이시라면 기본소득이 성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이은실: 성체제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 질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 두 젠더를 기반으로 해서 가부장제가 구성되어 있죠. 그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자본주의가 덧씌워진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체제, 가부장적 성체제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소득을 얻는 방편으로 결혼과 결혼을 경유한 어떤 취업 두 종



“가부장적 성체제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소득을 얻는 방편으로 결혼과 결혼을 경유한 어떤 취업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이 성체제에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여지들이 그 체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는 데 기본소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 거죠.”

류가 있었던 거죠. 이 성체제에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여지들이 그 체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는 데 기본소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제 주장만 아니라 그 논문에서 주되게 참조하고 있는 낸시 프레이저나 케이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캐롤 페이트먼, 캐롤 페이트먼 같은 분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성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체제 안에서는 어려운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이성애적인 구도 안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있는 한 여성들의 기본 업무는 즉 본업은 가정주부인 거예요. 본업이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의 일은 무상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죠. 어떤 인정도 없죠. 그리고 본업이 가정주부라고 상정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유상으로 노동 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본업이 그 일이라고 상정된 남성들에 비해서 동일하게 평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체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틈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기본소득이 만능 열쇠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거 한다고 세상이 뒤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움짱달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체제 속에서 어떤 다른 틈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기본 열쇠는 될 수가 있다. 이 열쇠에 더해서 다른 열쇠도 있어야 하지만 이 열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기서 했었죠.

기본소득을 말할 때 ‘페미니즘’, ‘기후정의’, ‘탈성장’, ‘자본’을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문지영: 제가 선생님의 강연이나 글을 보면서 뽑아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페미니즘’, ‘기후정의’, ‘탈성장’, ‘자

본'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기본소득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이은실: 페미니즘이 18세기부터 오랫동안 얘기되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논쟁도 많고 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상이 조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정의에서 출발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정의가 있어요. 이걸 뿔 혹은라는 사람이 제안한 정의인데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 그리고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모든 억압과 폭력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차별주의도 종식시켜야 되고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도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젠더라는 규범만, 이 규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본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차별'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왜 차별이 일어나는지, 그 차별이 어떻게 해서 억압의 형태로 혹은 착취의 형태로 일어나는지, 왜 폭력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보면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뜯어먹은 세 요소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것들 없이는 출발도 못 했고 지속도 못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성이에요. 여성들을 뜯어먹고 살아왔고 자본주의가, 무상으로 뜯어먹든가, 저렴하게 뜯어먹든가 아니면 정말 폭력적으로 뜯어먹든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자연이 있는 거죠. 자연도 무상으로 갖다 쓰고 물도 막... 물이 만들어지는 데 1원 하나 보탠 게 없으면서 무상으로 가져와서 팔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가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시점에서 왜 기후정의 얘기를 하나면 사실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피해를 입어 왔던 약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짐을 독박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굉장히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기

후 문제가 만들어져 왔던 과정도 정의롭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지금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가 사실은 기후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그 안에 여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정의 얘기 속에서 여성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성을 뜯어먹으며 살아온 체제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기후정의를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자본과 기후정의와 생태,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탈성장과 기본소득의 양립가능성은?

한인정: 탈성장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본소득이 어쨌든 현금을 지급해주는 건데 그 현금을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 자본주의가 더 확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이은실: 저는 일견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상품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현금을 준다는 것은 이걸로 상품을 사서 써라 이런 얘이기도 한데, 그때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을 전제하는 얘이죠. 그런데 모든 시장이 반드시 자본주의적 시장,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의적인 시장일 필요는 또 없고 모든 교환이 상품의 형식으로 교환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현금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편 화폐, 그 현금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소득 안에서 지역화폐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왜 지역화폐여야만 하는 건지 혹은 굳이 지역화폐여만 하지는 않다면 반반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만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오일장이 열려요. 제가 오일장에 가서 무엇을 구매하는 것은 저에게도 이롭지만 판매하는 그분에게도 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은 사실은

자본주의 상품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층위의 시장이거든요. 시장은 다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시장들도 층위가 있고 어떤 층위에서의 교환은 괜찮다는 거죠. 제가 기본소득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역화폐예요. 우리는 남원사랑상품권이 있거든요. 우리는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꼭 그걸로 나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남원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오일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제가 구입하면 저는 그걸로 필요한 지역 산물들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의 순환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거니까 그 모든 국민에게 현금이 매달 제공되었을 때는 엄청난 현금 순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기본소득론자들이라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폐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어떤 교환과 어떤 시장과 어떤 소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이 소비가 자본주의를 살찌우는 소비가 아니라 지역을 살찌우는 지역을 순환시키는 소비일 수 있으면 어떤 것일 수 있을까,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좋을까를.

저는 한때는 기본소득이 200만 원은 돼야지라고 믿었어요.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볼 때 200만 원 이하를 주는 기본소득은 정치적 효과가 하나도 없다, 페미니즘의 정치 안에서. 지금의 고용과 남편에 종속되는 관계를 끊어내려면 200은 있어야 살아가지 않겠냐 했던 거죠. 굉장히 도시 중심적인 사고였어요. 지금은 액수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고 지급 방식, 그러니까 어떤 화폐나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어요. 탈성장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식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되어서는 미래가 없죠. 사실 지금도 이미 미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는... 지금도 이미 뭔가 열심히 하면 나아지는 삶이 있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탈성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곧 재앙적인 미래가 닥칠 건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냥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죽을 거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괴롭게 죽을 거냐 아니면 전환의 방식들을 지금이라도 익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르게 사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죠. 석유가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겠어요?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석유 에너지에 입각한 시스템이 2030년에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카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도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붕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붕괴하면 어떻게 할 거냐? 붕괴한다고 우리가 당장 죽지는 않거든요. 괴로울 거예요. 괴로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다른 전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방식의 삶이요. 그래서 탈성장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탈성장 안에서는 기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에도 이 점이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예요.

5인의 집단 귀촌 기본소득과 지방 소멸 막기

한인정: 선생님께서 어느 강연에서 “지방 소멸은 이미 시작했다”, “탈 성장과 기본소득을 요구하자”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안하신 게 있으셨어요. 농어촌, 산촌의 과소화된 마을에 5인, 즉 사회복지사, 연구자, 문화기획자, 예술가, 마을택시 담당자가 집단 귀촌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개인당 매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100개 지역이 연대를 하고 그 마을들을 10년 동안 지원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제일 궁금한 건 집단 귀촌을 하는 5인을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5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예요.

박이은실: 왜 문화기획자 외 4인으로 구성했냐고요?(웃음) 이게 완벽한 조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조합인데 우선은 택시인데요. 저희 지역도 그렇듯, 농어촌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죠. 그리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사는 사람 수도 적고 왕래도 적는데 도시처럼, 무슨 대도시처럼 10분 단위로 버스를 계속 보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교통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



시청을 간다 해도 멀고 병원도 그렇고.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한 일 중 하나가 남원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서 다닌 거예요. 그때 과소화마을이 어떤 형태인지 알았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가장 힘든 게 바로 교통이에요. 어디 나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드니까 택시를 부르는데 요금이 비싸잖아요? 이분들이 현금도 별로 없으신데...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대중교통이 나쁘다는 평이 난 곳은 젊은 사람들이 귀촌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도 어디 나가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차 없이도 살아요. 저도 도시 살 때는 뚜벅이족이었거든요. 차는 절대... 차를 왜 가져? 이런 주의자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2년 차가 됐을 때 애들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저기 차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는 빨리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바로바로 오지 않으니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와 닿았어요. 아, 이런 상태구나. 교통은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감각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걸 제공하는 시스템인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있어야 하고, 마을에 한 분씩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기획자는...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의 좋은 점은 문화 활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아리도 50개가 넘어요. 그런 삶의 풍요가 있죠. 생활의 풍요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기획하면 어떤 기쁜 역동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구자의 경우는...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파악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말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정책도 맡기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게 연구자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뭐였죠?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예술가. 예술가는 우리 삶의 백미죠.

삶의 백미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 그곳이 어디였든 간에 예술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도시에서 예술가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도시에 꼭 살 필요 없잖아요?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마을에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5인이 구성이 되면 자기들끼리 또 시너지도 있고 그렇죠. 여러 전문적인 내용들도 교류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한인정: 그런 동네라면 진짜 귀촌하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자이자 사회복지사여서인지 몰라도요.

박이은실: 이 얘기를 어떤 청년한테 했어요. 서울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얘기했더니 이거 정책화 되면 자기는 당장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인정: 잘 듣고 계시죠? 정책 결정자님 이런 게 바로 귀촌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때 동물반려인 우당 등장) 여기 새롭게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박이은실: 소개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집 식구 중 한 분인 우당이라는 분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종종 여기를 오시네요.

기본소득과 기본토지와 비시장적 교환, 혹은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한인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당님.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 외에 이런 기본소득이면 좋겠다고 상상한 게 있으시면 나눠 주세요.

박이은실: 제가 기본소득이 200만 원은 돼야지,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액수가 줄어서 30만 원 정도에서 출발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변했는데 그 이유는 기본소득으로 모든 소비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로 충

당한다는 얘기는 그걸 다 시장에서 가져와 소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교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시장적인 교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전환을 생각한다면, 탈성장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면 그런 비시장적 교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시장적 교환과 시장적 교환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을 때는 30만 원 정도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3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잖아요? 제가 여성분들을 만나서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과금이 만약에 무상이 되면 전기가 무상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 전기가 무상이 되면 막 쓰니까 또 안 되겠죠. 탈성장 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동시에 해야 하니까 - 어느 정도 내가 당장 아프거나 현금 소득을 한동안 벌어들일 수 없겠다 할 때에도 기본 생존이 가능할 만큼의 액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마을의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해요. 그 외에는 비시장적 교환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요. 이런 방식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80만 원 정도를 생각하게 되었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본소득론자는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젊은 분인데,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자기는 30만 원 정도가 총당이 되면 노동력을 일주일 내내 팔거나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액수 정도는 첫 출발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과 함께 탈성장 사회로 나아간다면 더 더욱 다른 방식의 교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정: 30만 원에 사회복지사 100만 원이면 130만 원인데(웃음), 꽤 괜찮은데요? 당장 땅을 알아봐야겠네요.

문지영: 선생님 제안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에 요구해

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혹시 국가에 이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박이은실: 국가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그 것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제가 다섯 명 집단 귀촌이라는 상을 잡은 이후에 기회 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연구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의원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시청에도 보내고 도청에도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 이메일을 보내고 하다가 더 공론장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탈성장 얘기하는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니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인정: 그런 공론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임 같은 것에도 혹시 참여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박이은실: 그 집단 귀촌에 대해서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최근에 기부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 기본토지 얘기를 드렸어요. 기본소득도 중요한데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가 우리에게 생계의 기본 방식을 다 수탈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어지간하면 다들 없어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텃밭이라도 있어 보니까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감자라도 심어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자를 심어 먹고 썩도 캐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뭐랄까...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기본소득 얘기도 하지만 기본토지 얘기도 하면서 도시에서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상당수는 도시가 좋다고 하지만 또 상당수는 땅이 없어서 못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내에도 청년분들이 계세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내같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 인프라가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 접근성이 괜찮은 곳은 더더욱 은퇴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갈수록 땅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면 자원이 없는 청년들이 내려와서 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큰일이에요. 기본토지를 시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간에 고려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 지자체로 귀촌하시면 기본소득과 기본토지가 제공한다고 하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웃음)

한인정: 진짜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기본토지에 기본소득에 거기에 예술과 문화예술의 연구자 사회복지사, 마을 택시까지 있다면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지방선거(후보), 군수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변방이나 경계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박이은실 선생님을 비롯한 탱자 씨들이 여기저기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생각이요 또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3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합니다. 3부에서 뵈겠습니다.

제 3 부: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

도반들끼리 즐겁게 공부하는 곳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한인정: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기본소득으로! 박이은실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있는 삶’에 대한 상상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부터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호칭이 보통 삶의 지향을 많이 드러내는데 선생님은 호칭으로 “탱자 씨”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박이은실: ‘호칭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부르냐가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죠. 아까 예

를 들자면 저를 어떤 남자의 옆집에 사는 여자로 부르는 것과 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성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연애 파트너를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호칭으로만 보더라도 근친상간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근친상간적인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권위적인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위적인 호칭을 정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의 호칭을 시도할 거예요. 이 학교가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인데 앞에 “아주 작은”이 붙은 것도 사실은 호칭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 거예요. 이 학교는 확장을 지향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지금도 작지만 앞으로도 작을 거니까 성장이나 확장을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말아라, 나는 이미 선언했고 스스로에게도 약속하는 거죠. 이미 이 학교는 그런 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에선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요. 제가 이전에 제도권 대학에 있을 때는 교수, 선생님, 강사, 주로 이렇게 불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호칭으로 불리면서 맺는 관계들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함께 배우는,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 같은 사람들인 거죠.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도반(道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반이 같이 길을 가는 동료의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굳이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탱자 씨가 제일 좋았어요.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의 탱자 씨.’ 그리고 이 ‘씨’는 종의적인 의미도 있죠.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씨’라고 불리는 걸 되게 싫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누구 씨” 하는 게. 일례로 어떤 노 교수께서는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박사학위를 저보다 훨씬 늦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있고 그분도 있는 회의를 하면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남자분한테는 누구누구 박사, 누구누구 박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저에게는 꼭 누구누구 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내가 이 사람보다 굳이 자기들 좋아하는 기수로 따지면 선배일 텐데 왜 나는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꼭 그렇게 박사라는 호칭으로 부를까 했죠. 그 선생님이 워낙 나이가 드셨고 해서 굳이 그 선생님에게 따지겠냐 해서 저는 참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도 호칭의 정치학이 있는 거죠. 그분도 마치 저희 마을의 이장님이 저를 어떤 남자의 집의 옆집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그분도 그런 맥락에서 저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저는 씨라는 걸 싫어해요. 사실 그런데 씨라는 것은 그냥 종립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배우도 그렇고 대배우인 윤여정 배우도 누가 ‘윤여정 씨’라고 부르지 갑자기 다른 호칭을 쓰지 않잖아요. 탱자 씨의 ‘씨’는 그런 ‘씨’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씨’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좀 털어내는 역할도 있는 거죠. 스스로를 탱자 씨라고 부름으로써 그런 역할도 했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저의 관계 설정도, 내가 물론 선생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신들에게 선생님은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이다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걸 쓰게 됐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섞어서 불러요. 쌤, 선생님, 쌤님, 탱자 씨, 이렇게 섞어서 부르는데 그런 거는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동시에 외부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는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전담교수라고 해요. 저의 직책 같은 거죠. 그것도 호칭의 정치학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교수라는 호칭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쓰이고 있고 제도권에서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비제도권의 공부하는 영역인 이곳에서 그 호칭은 일종의 전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색깔들을 입히고 있는 거죠.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웃음) 아무튼 탱자 씨는 그렇게 등장하고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탱자탱자 즐거운 삶과 기본소득

한인정: ‘탱자’ 하니까 저는 탱자나무의 탱자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 탱자 말고, 혹시 다른 뜻의 탱자로 쓰고 있는 건 없을까요?

박이은실: 우리가 공부를 너무 죽을 듯이 하지 말고 살 듯이 하자 탱자탱자 즐겁게 공부하자라는 의미도 있죠.

한인정: 여러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 셈이네요. 우리 모두가 탕자탕자하는 일상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선생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런 조건들은 정말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탕자탕자 지내기 위해서?

박이은실: 우리에게 24시간 밖에 없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24시간 중에서 삶을 향유하는, 내가 오늘 살아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이 없다면, 매일매일이 그런 식이라면 사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탕자탕자 살 수 있도록 이 24시간이 잘 구성돼야 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노동력을 반드시 팔아야만 하죠. 노동력을 파는데 24시간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하게 되면 탕자탕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탈성장과도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GDP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돈이 많다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비력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소비력이 곧 삶의 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이 무엇으로 담보될지에 대한 자기 생각과 확신도 탕자탕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다음 달 1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30만 원이 지급된다면?

한인정: 그런 확신을 갖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도 들리네요. 저희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책을 지난해에 출판했는데, 이 로드맵에서는 기본소득을 30만 원으로 시작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 이 제안 대로 실제로 30만 원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된다면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감회가 어떠실까요?

박이은실: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을 해봤잖아요. 물론 그건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요. 그것만 받아도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되게 의지가 되고요. 그게 생기면 내가 노동력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보장이 되겠구나라는 안심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그 역할을 한다면 매달 주는 기본소득이 설사 3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문지영: 그러면 선생님이 받는 기본소득으로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당장 선생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박이은실: 제가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중년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책무들이 있잖아요. 자원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밥 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책무들이 있어요. 기본소득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좀 더 그런 역할을 잘 해내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노동력을 내가 팔지 않아도 보장되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은 늘 굉장한 의지가 되겠죠. 그것은 너무 큰 의지가 될 거예요.

지속가능한 소박한 삶 - 산내마을이 기본소득과 만난다면?

한인정: 그걸 이 산내마을 공동체로 조금 펼쳐서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박이은실: 일단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예전에 재난지원금이 처음 나왔을 때 이웃 마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저는 비건인데, 다 소고기를 사 먹었대요. 한국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먹는 거에 대한 애환이 있나요?(웃음) 돈 생기면 소고기 먹어야지, 이게 너무나 DNA에 박혀 있는 건지... 그러셨다는 얘기를 듣고 슬펐어요. 여기에서는 현금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소득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출퇴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을

에 계속 있어도 되게, 안정적으로 여기에 정주하고 살아도 되게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장치가 되어 줄 것 같아요. 이런 시골에서 소박하게 정주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을 꿈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들어왔다가 너무 이게 아니고 너무 별이가 없으니까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며 단념하고 다시 도시로 가거나 인근의 소위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분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의 얼굴이 더 밝아질 것 같아요.(웃음)

탈성장의 계기로서의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이 갈 길

한인정: 지금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를 상상해보면 그냥 웃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왠지 안정감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려면 기본소득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본소득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이은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소득은 시장에서의 교환을 위한 것이잖아요? 공과금을 내든 뭐든 간에 어떤 거를 교환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시도들이 더 필요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탈성장 고민을 하고 또 탈성장 위주의 어떤 경로를 지금 걷고 있다 보니까 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이나 이런 걸로 얘기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탈성장이어야 하고 그 탈성장 방향 안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삶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줄 거냐,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들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동력

한인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갖기 위해서 정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이은실: 탈성장 안에서 얘기되고 페미니즘 정치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참여죠.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도구여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심부름꾼이어야 하는 것이지 권력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권력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고 요구할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지간한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딱 잡혀 있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정부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정부도 눈치를 보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도 그런 마을로 거듭나야 한다고 봐요. 우리 한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했고 도시에서도 마을 만들기 얘기를 많이 했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면서 되게 슬펐잖아요. 코로나로 사람이 못 모이게 되면 좋아하는 층이야 있을 거예요. 누군지 딱 짚어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회의 여성들이 그런 주체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그리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더 재밌게 공부하고 더 즐겁게 살기-산내마을의 세계화 혹은 세계의 산내마을화

문지영: 이런 변화가 산내마을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흑시 전략이 있으실까요?

한인정: 마지막 질문이라 창대하게 여쭙네요.

박이은실: 저는 뻗어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주의예요. 우선 내 삶의 주변을 알뜰하게 한다 정도. 이게 좋은 거라



면 내가 굳이 막 얘기하지 않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이러면 따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바라요. 가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기 위해서 어렵고 여기서 가능한 것이 거기서도 가능한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만 우리 마을, 지금 산내라는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고 있어요. 물론 한계도 많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분들이 각자 다 바쁘게 재밌게 사세요. 그분들을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저기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바쁘게 놀러 다니고 맨날 숲 보고 나무 보고 곤충 이름 알리고 즐겁게 도시락 같이 까먹고 이런 걸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마을이 참 좋은 곳이다’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학교에 오는 사람들과 재밌게 공부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 수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또 다른 페미니즘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설악산 페미니즘 학교, 남해 바닷가 페

미니즘 학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게 되면 또 아 잘 됐네 하고 또 좋아라 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지만 그게 저의 계획에 있진 않아요. 그런 걸 내가 지향해서 내가 목적하고 막 어디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사는 삶에 충실하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도 뭐라도 기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인정: 탱자 씨랑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뭔가 훌륭한 삶,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그냥 행복해 보인다’ 그게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지리산에서 오늘 이렇게 탱자탱자 지내는 선생님을 뵈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희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저희 때문에 탱자탱자 대신 너무 바쁘셨던 것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상상하는 기본소득들이 현실화되고 그 이후에 더 행복한 삶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박이은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탱자 씨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탱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기본소득으로 박이은실 선생님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파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리: 류보선)